

화학물질관리법 대응을 위한 도금업체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
A Study on Survey of Plating Company for the Chemical Substance Management Act

이준균

한국생산기술연구원 스마트씽유그룹 (E-mail: leejk@kitech.re.kr)

초 록: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도금기업의 준비 현황 및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중간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업체에서 가장 부담스럽다고 느낀 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·설치·관리 기준’ 중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하였고, 최종보고서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제안한 「화관법 개선 산업계 의견」을 참고하여 도금업체의 현장과 관련된 부분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.

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부문의 경우 도금공장의 시설 결함 및 노후화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현장이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기 이전에 시설 허가를 받을 때 건축법이나 소방법 등 여러 규제사항을 통과하여 인·허가를 받은 사업장이고 또한 정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보장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.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화학사고를 경험과 관련하여 94% 이상이 “없다” 라고 응답하였으므로 약품에 의한 화학사고의 개연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